

# 해외출장복명서

2015년 8월 31일  
국제산업협력실 강지연 연구원

## 1. 출장 개요

- 출장자: 국제산업협력실 강지연 연구원, 심완섭 연구위원
- 출장지역: 중국 다롄, 단둥, 선양, 하얼빈, 헤이허
- 출장기간: 2015년 8월 9일 ~ 8월 15일 (6박 7일)
- 출장목적
  - 중국 동북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한중 정책협의회 개최
  - 중국 동북 3성에 대한 현지시찰을 통하여 최근 실태 및 동향 파악
- 출장일정

| 날짜      | 시간 | 세부일정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8/9(일)  | 오전 | 인천 → 대련 이동           | OZ301 09:40-09:55<br>대련KOTRA백인기관장면담<br>대련 1박 |
| 8/10(월) | 오전 | 대련 → 단둥 이동           | 단둥 한인회장 면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오후 | 단둥 지역                | 중·북한 국경무역 시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저녁 | 단둥 → 심양 이동           | 심양 1박  |
| 8/11(화) | 오전 | <b>요녕 및 길림 정책협의회</b> | 심양에서 일괄 진행<br>심양KOTRA 김두희 관장 면담              |
|         | 오후 | 심양 지역                | 심양 한국전용 또는 대표적 산업<br>단지 시찰 (심양 1박)           |
| 8/12(수) | 오전 | 심양 → 하얼빈 이동 (고속철)    | G705, 09:25-11: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오후 | 흑룡강 한인회 면담           | 하얼빈 1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/13(목) | 오전 | <b>흑룡강 정책협의회</b>     |  |
|         | 오후 | 하얼빈 → 헤이허(黑河)        | MU5613, 12:40-14:05<br>헤이허 1박                |
| 8/14(금) | 오전 | 헤이허 산업단지 시찰          | 중러 국경무역 시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오후 | 헤이허 → 하얼빈 이동         | MU5614, 14:50-16:10<br>하얼빈 1박                |
| 8/15(토) | 오전 | 하얼빈 → 인천 이동          | CZ683, 08:30-11:50<br>OZ340, 14:30-17:50     |

## 2. 주요 면담 내용

### (1) 요녕성 및 길림성 정책협의회

#### □ 개요

- 일시: 2015년 8월 11일(화) 09:30-14:00
- 장소: 중국 선양시 SK빌딩 4층 자하문
- 참석자
  - 한국측: 이문형 박사, 심완섭 박사, 강지연 연구원(KIET), 서종원 박사(교통), 이현주 박사(국토), 정환우 박사(코트라), 김두희 관장, 김성훈 과장(선양무역관)
  - 중국측: 金喜成(辽宁省工业和信息科学研究院), 权英辉(辽宁中邮电商物流有限公司), 吴昊, 陈英姿(吉林大学东北亚研究院)

#### □ 협의회 주요 내용

##### ① 요녕성 정책협의회

- 요녕성 경제성장의 걸림돌
  - 자원, 투자, 토지에 의존하는 경제모델로 문제점이 많음.
  - 과학 관련한 기관수는 46개로 숫자는 많으나,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. 즉 투입량은 많으나, 산출량이 적은 문제임. 개인적으로 기관수는 4~5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함. 현재로서는 과학연구 성과가 미비함.
  - 산업 공급 과잉문제가 심각함. 예를 들어 이전에 30개에 5원에 팔았다면 지금은 2.5원으로 절반 수준임. 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됨.

- 핵심기술이 없는 저기술 산업을 지속하면 공급과잉 문제가 생김. 예를 들어 철강은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 철강산업이 큰 타격을 봄.
- 부동산 정책도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함.
  - 지난 10년간 요녕성은 재정수입을 부동산에 의지함.
  - 부동산 공급량은 3,000만 명인데, 실 수요자는 600만 명에 불과한 실정
  - 토지 개발을 대부분 부동산 개발에만 투자함. 기존의 농토는 개발되고 농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. 이러한 토지 이용 정책을 바꿔야 함.
-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수준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, 대졸자나 경쟁력 있는 인재들은 베이징, 선전, 항저우 등 대도시로 진출하는 등 청년 인력이 부족
- 가장 큰 문제는 요녕성은 국영기업 비중이 70%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임.
  - 국영기업은 성과에 따라 임금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적극성이 매우 부족
  - 예를 들어 A공공기관의 경우 최고 직급의 월급은 9,000위안인데, 기관의 최저 월급이 3,000~4,000위안으로 격차가 크지 않음. 즉 직급별 임금차이가 별로 없음. 일할 의욕이 많이 상실됨.
  - 또한 국영기업 기관장 임기는 4~5년으로 경영의 지속성이 없음.

- 향후 중국의 국영기업 개혁이 가속화되어 민영기업화 된다면 한국과의 협력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임. 국영기업의 경우 보고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거의 없음.
- 요녕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단기간 해결이 어려움.
  - 계획경제의 문제점은 바로 정부 의존이 높다는 점. 많은 예산을 요구
-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북중 경협사업 현재 진행 사항
  - 2012년 기공식 이후 현재 거의 진행된바 없음
  - 근본적으로 황금평과 위화도는 지질학적으로 토질이 약하고 물이 많아 산업단지 입지로 부적합
  - 또한 북한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북·중 경제관계 악화도 북·중 경제 무역지대 추진 어려움의 요인 중 하나
- 요녕성과 북한 간의 교통물류부문 진행현황
  - 최근 북·중 관계 악화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없음
- 요녕성과 북한과의 경제협력 가능성 및 주체
  - 현재 북·중 무역의 70% 이상 단둥과 심양 등 요녕성에서 발생
  - 앞으로도 북·중 경협은 단둥, 심양, 대련이 중심이 될 것임
  - 경협의 주체는 최근 자본이 풍부한 중국 한쪽을 중심으로 이루어

지고 있음.

- 특히 홍콩 사람들이 자주 북한을 왕래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준비 중임.

## ② 길림성 정책협의회

### ○ 최근의 경제 상황

- 2013년 세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이후, 자원 매장이 많은 동북 3성의 경제성장도 매우 위축됨.
- 길림성의 경우 금년 상반기 시진핑 주석, 리커창 총리가 방문하였으나,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음.
- 금년은 2013년보다는 상황이 다소 나아짐. 2013년에는 실업률이 높았으며 신규 일자리가 거의 없었음.
- 산업이 발전해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길림성 산업 현황이 좋지 않음. 즉 산업의 문제임.

### ○ 길림성 산업구조

- 길림성의 산업구조는 단일화되어 있음. 자동차, 식품 등 주요산업이 문제가 되면 전체 경제가 흔들거림.
- 주로 조립, 임가공 위주의 산업으로 실질적인 산업 부가가치는 상당히 낮은 편임.
- 길림성 최대 업체인 일기 자동차는 기업 규모는 크나 협력업체, 관련 서비스업 등이 낙후됨.

- 또한 시진핑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, 공무원 청렴 강조 등으로 자동차 소비도 크게 위축됨. 길림성의 자동차 소비는 주로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졌는데 최근 공공경비 감소로 자동차 산업이 하락 추이를 지속
- 중앙정부의 산업 이전 정책에 대한 견해
  - 개인적으로는 산업 이전 정책에 반대함. 중국 동북지역은 산업기반이 약한 경제구조로 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
  - 산업 이전을 해서 성공시키려면 주요 업체를 포함하여 협력업체, 인프라가 모두 필요한데 동북지역에는 이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.
  - 동북지역에서 성공한 산업이 동북지역에서도 똑같이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음.
- 동북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방안
  - 동북지역은 농업 중심, 자원 중심 지역으로 식품가공, 화학비료, 유류제품을 발전시켜야 함.
  - 한국은 식품가공, 화장품 분야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으므로, 동북지역과 이러한 분야에 협력할 여지가 매우 큼.
- 창지투(长吉图) 계획에 따르면 창지(창춘, 지린) 지역은 배후지로서의 훈춘은 대외개방창구로서, 옌룽투(옌지, 룡징, 투먼) 지역은 이들 지역을 연계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추진
  - 훈춘은 상주인구가 십여 만 명에 불과함. 정부 계획만으로는 안

될 것으로 보임. 물론 창지투 계획의 추진을 통해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개선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, 정부의 일방적인 산업이전 등 계획만으로 성과를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임.

○ 창지투 선도구 계획의 성공 여부

- 창지투 선도구 계획이 실패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움.

- 그러나 계획의 핵심인 출해 항구 확보라는 측면에서 북·중 국제운송로 구축 계획이 추진되지 못한 부분은 창지투 선도구 계획 추진의 큰 장애요인 중 하나

○ 랴오닝성의 단둥과 지린성의 훈춘 지역은 북한과의 주요 인접지역인데 향후 북·중 관계 또는 초국경협력에 있어서 중국정부 입장에서 어떤 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가

- 북한과의 경험관계가 현재는 중단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기 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따른 경험을 추진하고자 함.

- 단둥을 북한의 평양, 평안북도 등과 인접해 있는 반면, 나진은 인구도 적고 매우 낙후된 지역이므로 중국내에서도 단둥을 더 중요하게 보는 시각도 있음. 현재 단둥의 경우 북·중 무역의 60% 이상을 차지

○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서 북한 및 한반도가 제외된 배경

- 현재 2015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성별 일대일로 사업에서는 한반도와의 사업이 제외되어 있음.

- 일대일로 사업이 중국 서부지역 중심의 사업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

로 유라시아 지역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물류통로를 구축한다는 전략으로 동북지역도 주요 대상중 하나임.

- 북·중간의 관계 및 두만강유역의 복잡한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이번 정책발표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큼.
- 따라서 한반도와 관련된 계획은 별도로 수립중일 것으로 예상되며, 또한 이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계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도출 필요

## (2) 흑룡강성 정책협의회

### □ 개요

- 일시: 2015년 8월 13일(목) 15:00-18:00
- 장소: 중국 하얼빈시 하얼빈사회과학원 대회의실
- 참석자
  - 한국측: 이문형 박사, 심완섭 박사, 김학기 박사, 강지연 연구원(KIET), 서종원 박사(교통), 이현주 박사(국토), 정환우 박사(코트라)
  - 중국측: 宋魁(黑龙江省社会科学院), 张隽(哈尔滨市社会科学院东北亚研究所)

### □ 협의회 주요 내용

- 흑룡강성은 신중국 건국 이후 공업 주요 지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, 개혁개방 이후 동부 연해지역으로 산업 거점이 이동하면서 낙후 공업기지로 인식됨.
  - 주로 자원을 활용한 산업으로 최근에는 글로벌 자원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흑룡강성(동북3성)의 GRDP가 크게 낮아짐.

- 하얼빈시에 위치한 하얼빈 공대는 중국 최고의 이공대학이나, 졸업생 중 10~20% 정도만 하얼빈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동부 등 산업발전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고급인력 유출이 심각
- 흑룡강성은 중국 전역에서 농산물 생산량 1위이나, 수익성이 낮음.
  - 광활한 농지를 바탕으로 옥수수, 콩, 감자 등 식량작물 생산량이 많으나, 이를 활용한 경제적 수익 창출은 미흡한 수준
- 따라서 향후 흑룡강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국 각지로 유통시킨 이후, 현지에서 식품 가공하는 구조로 농업을 산업화하려고 함.
  - 혹은 식품가공 업체에 적극 투자하여 흑룡강성 내에서 가공한 후 전국에 유통시키는 방법도 모색 중에 있음.
- 금년 초에 동북3성이 일대일로 계획에 포함된 이후, 흑룡강성은 일대의 동북 최전방으로서 향후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보임.
  - 일대 계획에 포함된 흑룡강성은 철도·도로망을 통해 중국 내륙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기회를 모색하고자 함.
  - 사실 일대일로 계획을 제외하면 흑룡강성이 포함된 국가급 발전계획이 없으므로, 흑룡강성 정부는 일대일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.
- 중국과 러시아간 국경통로 물동량 규모
  - 흑룡강성의 경우 수분하와 흑하(헤이허)의 규모가 큼
  - 중국 전체로 보면 길림의 훈춘, 신강지역의 국경도시의 물동량이

## 비교적 많음

- 한국과 흑룡강성 협력 가능분야(한국 진출 유망분야)
  - 흑룡강성의 농업생산량이 전국 1위이나 기술이 낙후되어 있어,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이 진출하면 상호 이익을 얻을 것임
- 한국으로 144개 컨테이너를 금년에 러시아 항만을 통해 운송하였다고 하는데 품목은?
  - 대부분 화학제품으로 특정 기업의 화물로 예상됨
  - 향후 흑룡강성에서 러시아 항만을 통한 한국으로의 물류 운송은 증가할 것임
-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, 중국, 러시아 등 3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인프라 분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.